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어린이 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교육관
청년 모듬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7시	음대 강의실
한민 말씀방	매일	단체 카톡방

주일 예배 봉사위원

	09. 06	09. 13	09. 20
대 표 기 도	이상호 목사	최종열 성도	이윤선 성도
성 경 봉 독	김정규 형제	최종열 성도	이윤선 성도

교회소식

8월의 축복 인사 : 주님의 선하심이 함께 하는 8월 되세요!

1.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온라인 헌금 안내 - 십일조(Zehnte) 감사(Dank) 선교(Mission) 구제(Erlösung) 주일헌금(Kollekte)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용도)
3. 성찬예식 - 다음 주일(6일)은 성찬예식으로 예배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4. 선교 훈련(초기 7교회, 바울사도 1차 전도지) - 27년 3월 9일~16일(7박8일, 튀르키예) 신청-9월27일(주일)까지. 최상우 청년회 회장께
5. 8월 생일 축하 - 황희순(1일) 최종열(14일) 류현석(17일) 정용현 안수집사(25일)
6. 북부 목회자 협의회 - 목회자 수련회(9월 2~3, 뤼벡)
7. 나눔의 시간 - 경아, 효섭 Steinbauer 성도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감사헌금	
합계(Euro)	
온라인헌금(7월)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일어나서 함께 가자(아2:10)”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신 기 훈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7, 29,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온라인 헌금 안내

예금주 : Jin Soon Chung
IBAN : DE26 2905 0101 0012 0638 48
BIC : SBRED 22XXX

홈페이지 : 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찬 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567장	다같이
기 도 Gebet	-----	이상호 목사
성경봉독 Predigttext	시 23 : 1 - 6(구p 818) (Pslam 23:1~6)	정해욱 형제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헌금기도 Kollektgebet	-----	이상호 목사
설 교 Predigt	은혜의 식탁으로 인도하시는 목사	이상호 목사
*파송찬양 Abschlusslied	주와 같이 갈 가는 것(1,3절)	다같이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아침은 성김입니다”

†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놓인 헌금함에 넣어 주세요.

†기도제목

1. 예배 봉사자와 청년 성김이들, 청년들의 진로(진학, 취업, 결혼)를 위해
2.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 청년들의 가치관 확립을 위해(진로, 결혼)
3. 영적, 육적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소서(황희순 집사님)
4. 2027년 3월 9~16일까지의 선교훈련을 위하여
5. 일어나서 함께 가는 교회 - 선교, 구제, 영성훈련에 힘쓰는 교회 되도록

은혜의 식탁으로 인도하시는 목사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푸른 풀밭과 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하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식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은 여전히 원수 앞에 있었지만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참된 만족과 평안은 환경이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1. 목자는 원수 앞에서도 식탁을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에만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2. 목자는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은혜로 채우십니다.

다윗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은 소유와 능력과 사람들의 인정으로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완전히 채울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목자는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와 그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도의 최종 목적지는 세상의 성공이나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마침내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은 우리의 삶이 항상 평안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과 눈물이 있어도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참된 안식은 환경이 좋아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도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소 모임을 위한 질문

1.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고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2.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를 어떻게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